

는 만큼의 '척'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척'을 하고 있는지, 자신답게 살고 있는지, 마음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지, 자신이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쌓아가는 편도 여행인 것

이다.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고, 내 안의 고귀한 나를 발견하여야 한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척'을 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이웃 돕기 활동을 말하면서 밤 한 그릇값 만원의 후원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때 한 친구가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인데, 왜 남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꺼내냐"며 불쾌해했다.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어 바로 사과를 했다.

세상에는 감추려는 아픔보다 어루만져야 할 부끄러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찾아가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참 이웃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나의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불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남을 도울 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면 두 배로 얻어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많이 벌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세상의 '돈, 돈, 돈'소리에 자존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일지 모른다.

높으신 분들이 명절 때만 되면 보육원,

양로원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 주는 자의 우월한 시선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건 나눔이 아니라 우월감을 즐기는 일이다.

그냥 하는 소리지만,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무슨 염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 세상에 그대 것이 어디 있는가. 한 세상 잠시 왔다가는 인생, 가져갈 수 없는 집에 미련일랑 두지 마시게나.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발버둥치며 간간힘을 쓰나. 간밤에 꾸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허무하고 무상한 것.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인데 이승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는 마오. 별거벗은 몸으로 와서 한 세상, 사는 동안 구경 잘하고 가면 되었지. 빈 몸으로 간들 하나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소.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시게나. 그리고 한 마디 더하자면 남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질 말게나."

그 친구 덕에 나도 신문지, 폐지, 빈 병, 박스 등 생기는 대로 모아 폐지 아줌마에게 드리고 있다.//

봄의 길목에서 고독한 노병의 독백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공군사랑회 부회장)



아직 추위가 가지지 않은 음산한 거리에 봄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봄비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것 같다. 지난 겨울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옛그제 지우가 카톡으로 보내준 아름다운 '입춘대길(立春大吉)'문자를 보고서야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

"추위가 한차례 빼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의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문장은 황벽 선사의 '전심법요'에 나온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는 말도 있다. 봄 소식을 알리는 매화는 혹독한 추위의 고통을 참고 이겨낸다는 뜻이다. 매화의 개화 소식이 봄바람에 실려오지만 올해의 꽃 소식은 '국기 문란'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격정과 혼란에 묻힌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강물이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보듯이 시간의 흘러감을 조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매화의 경우를 생각해보아도 그렇다. 혹독한 추위가 지나가면 매화꽃은 어김없이 피어난다. 이 흐름은 바뀐 적이 없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어려운 때는 반드시 끝이 있다. 혹독한 추위의 지속을 매화가 오래 감내하듯 곤경을 맞고 있는 우리도 멀리 바라보면서 조금하고 불안한 당장의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겪게 된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아 대처하고 처방해야함은 물론이다. 늘 겪는 것이지만 계절의 변화는 참으로 오묘하면서도 무상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토록 애절하게 울부짖던 매미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가 대신하더니, 끝까지 않을 것같은 무더위와 열대야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조석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하더니 어느덧 훈풍이 코끝을 스치며 봄소식을 전한다.

차디찬 겨울 자락과 봄 자락이 서툰 바느질로 금세라도 풀릴 것 같은 모양새다. 문득 지난 겨울, 난 무엇을 하며 소일을 보냈을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련만, 머릿속에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문득 되돌아보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의 순간이 있다.

자기 비난의 지독한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한 주, 한 달, 그리고 한 계절, 한 해가 어떻게 오가는지도 모르고 우두커니 자기 그림자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다.

우울과 불안으로 마비되어 원치도 않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텅빈 머릿속은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들어 차있다. 그렇게 허망함에 빠져 남을 비교하면서 거

대한 슬픔이 몰려오기도 한다.

내가 했던 선택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지만, '왜?'라는 단어만 떠오른다.

'왜?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주위 사람들보다 더 약했어야 했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다. 더 이기적이고 영리한 선택을 했어야 했다. 지금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렇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내가 누구보다 옳았을 것이다. 그 순간만은 가능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내게는 나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생의 가치가 있다. 나의 삶 안으로 들인 사람들, 내가 사용하는 다정다감한 말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온 원칙이 있다. 내가 무례하고 불의하고, 착취적인 군상들에게 견장을 수 없이 화가 치밀고, 환멸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나는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게 바로 나다.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부족했던 것도,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내가 비겁하고 부도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 자리는 분명 바뀌었을 것이다.

연말에 사업에 실패하고 홀로 외롭게 살고있는 친구가 생각났다. 그 친구가 사는 단칸방을 찾아가 친구와 작은 정을 나누고 있을 때, '빈 병이나 헌 신문지 박스가 있으면 달라'고 어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친구는 "잠깐 만요."하더니 몇 개 남은 사발 라면을 몽땅 비닐봉지에 넣고, 둘이서 마시던 소주병들을 들어 빈 컵과 그릇에 다 따르더니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여기 빈 병과 폐지입니다."하면서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을 보았다. 힘에 지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글썽이는 눈물을 보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손수레를 끌고 가는 허리 굽은 그 할머니의 뒷모습. 당장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이를 돕는 친구의 마음. 몇 끼를 굶어도 배부를 것같은 광경이었다.

"친구야, 자네 먹을 것까지 다 주어버리면, 자네는 어쩌려구?"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더니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난 할머니보다 더 젊잖아. 그리고 몇 끼쯤 굶어도 괜찮아. 굶는 것도 이력이 나서 참을 수 있거든. 그리고 자네 같은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는데, 뭘 걱정, 안 먹어도 든든해."

가슴이 뭉클해진다. 한때 녀석했던 시절, 그렇게 아끼지 않고 베풀던 친구가 사업 실패로, 나 역시 녀석지 못해 이 친구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친구의 낮은 삶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얼마 전 또 다른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내가 지난 50년간 불

희망의 계단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7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눈발은 그쳤으나 들녘에는 살을 에듯 카랑한 바람이 다녔다. 나뭇가지마다 으스스 떨다 가는 추위도 이제는 시간에 밀려 북으로 갈

것이다. 남쪽 바다 어디쯤 서성이고 있을 봄바람을 기다리며 우리는 또 하나의 새해를 맞는다.

새해를 맞으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한결같다. 사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나은 삶의 질료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희망의 계단을 오른다.

그러나 신년마다 굳게 다짐하고 세우는 계획표를 따라 과거의 습관을 고쳐보리라는 생각은 잠시뿐, 굳게 다짐하고 세웠던 계획은 시간이 흐르면 까마득히 잊히고 만다. 신년의 꿈같은 계획표가 길게 가지 않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년 초에 세운 계획은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 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새해를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년 초마다 건강을 위해서 체내에 가득 짙어지고 있는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눈이 와서, 너무 추운 날씨라, 등등의 이유로 하루 이를 빠지다 보면 어느 날부터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하면서 마음만 오갈 뿐,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서 세웠던 계획은 까마득히 잊히고 만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안고 산다. 언제든지 열리기를 바라는 희망 상자를 열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만들어 가는 희망의 계단을 75개성상(星霜) 훌쩍 넘게 쌓아 왔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여 가는 것

이라고 했는데, 쌓인 세월만큼 희망도 쌓인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성과 이하의 기대치로 끝나버리는 계획들이었다.

우리는 신년 달력을 받아보면서 중요일정에 동그라미를 치고, 계절별로 이루어야 할 목표치를 정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진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 되돌아보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결과는 없다.

삶의 길은 그리 멀지 않다. 유년기를 거쳐 성장기와 노년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삶의 질을 느끼며 살아야 할 기간은 그리 많지 않음을 모두가 느끼면서도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요즘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족상잔의 6·25 전란을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인 우리는 먹을 것조차 없어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살았다.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아침을 늦게 먹고, 저녁을 일찍 먹는 방법을 택했다. 아니면 점심은 고구마나 간단한 간식거리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더러는 먹을거리가 없어 황달이라는 간의 질병을 앓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과거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도시에 근대화의 바람이 불고 국가는 농업국가를 탈피하고 중공업국가로 들어섰지만, 근대화의 변두리에서도 공장이 들어서지 않던 호남 지방에서는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젊은 이들이 떠나갔다. 그러한 이주의 반란이 오늘의 경제성장을 만들었고 세계 부강국(富強國)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요즘 젊은이들은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 일거리가 있어도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일자리만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을 내세우고, 임금인상을 발미로 의기투합하여 길거리로 나와 농성을 한다.

또한, 키우기가 어렵다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한 집에 5남매, 10남매를 낳아 어떻게 키웠

겠는가? 요즘은 우리나라같이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겠는가?

나라 곳곳에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 그곳을 외국인들이 들어와 채워가고 있다. 과거 우리는 2억 만리 낯선 나라를 찾아 돈을 벌려고 떠났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근로자들이 들어와 일하고 우리 젊

은 세대는 놀고먹는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희망의 계단을 가능한 일부터 계획하고 쌓아야 한다.

즉 능력에 맞는 일을 골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건강을 위한 신년 계획이나, 젊은이들이 세우는 미래지향적 계획표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워야 할 것이다.//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과 탑건(Top Gun)

전대길 (주)동양 EMS대표이사,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미국 조폐국에서 새로운 25센트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이 주화(鑄貨)에는 기존의 조지 워싱턴의 얼굴과 미합중국 국조(國鳥)인 독수

리 문양(文樣)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 주력 P-51 머스탱(2대)이 비행하는 장면이 배경이다.

또한 '최초의 흑인(黑人) 공군부대인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의 얼굴을 담았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 명령에 따라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 부대가 창설되었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당시에 흑인 조종사 양성을 위해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비행훈련 기지를 만들고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군 조종사는 백인(白人)만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흑인들을 백인보다 열등(劣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 훈련생들은 미군 내에 만연한 인종차별(人種差別)과 싸우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웠으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흑인 조종사들의 전투기 꼬리 부분을 적의 눈에 잘 띄게끔 붉은색으로 도색, 적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미군 조종사의 목숨을 구했다.

'Red Tails' 또는 'Red Tail Angels'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터스키기 에어맨은 조종사 994명을 포함해 정비사와 지상 요원 등 무려 16,000명이었다.

이들은 북이탈리아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폭격기 보호와 지원 업무를 통해 빛나는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 후 공훈과 희생을 인정받은 '터스키기 에어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통령 부대 표창 등 수많은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활약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의 마중물이 되었다.

2019년 미 공군은 '터스키기 에어맨'의 용맹(勇猛)함을 기리기 위해 차세대 고등 훈련기 꼬리 날개를 붉은색으로 도색했다. 적과의 공중전(空中戰)은 물론 인종차별과 편견(偏見)이란 또 다른 싸움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창공(蒼空)을 날았던 '터스키기 에어맨'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되어 울림을 준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의 최고 영예인 탑건(Top Gun)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다.

베트남전 당시의 이야기다. 미 해군은 '미사일 만능주의'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Pilot)에게 근접전(Dog Fight) 훈련에 소

홀했다. 그 결과 전투기 조종사들의 희생과 기체 손실이 컸다.

"미사일을 쏘면 되지 왜 기관총이 왜 필요하나?, 왜 적의 전투기와 근접해서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사일이 자주 빛나가고 접근전 상황이 되자 북베트남군 소속 미그기들에게 예상 밖의 졸전을 기록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기 1대가 미그기 적기 12대를 격추한 12:1이던 격추율이 베트남에서는 3.7:1로 떨어졌다.

따라서 미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근접전(近接戰) 전투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했다.

1969년, 미 해군은 근접 항공전 훈련을 실시하고 세계 최정예 엘리트 Pilot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관을 설립했다. <미 해군 항공단 공중전 학교(Navy Fighter Weapons School)>인 <탑건 스쿨(Top Gun School)>이다.

1996년 미 국방부의 협조로 탑건(Top Gun) 영화가 제작되었다. 실제로 미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대가로 파라마운트 영화 제작사로부터 미 국방부가 US\$1,800,000를 받았다.

1996년 당시 '탑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국 해군은 극장에서 '탑건'을 보고 나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징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래서인지 미 해군을 지원하는 신병들이 자그마치 5배 이상 늘었다.

필자는 베트남전에 참전(1969~1971)한 대한민국 공군의 참전 용사다. 주월한국군 사령부 공군지원단(사이공/나트람)에서 백마부대와 맹호부대 전투 작전을 지원하는 주월 미군야전사령부(IFFV)에서 미 공군 항공작전담당관(G-3 Air)과 같이 합동 근무를 했다.

이때 미군이 쓰는 GI 영어를 배웠다. 많은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 보았지만 <Top Gun>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미군이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Top Gun> 칭호를 자신의 명예이며 가문의 영광(榮光)으로 삼았다. 이들의 자긍심(自矜心)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지난 55년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守護)해 온 공군 팬텀(F-4D) 전투기 퇴역식이 엇그제 열렸다.

1969년 미국에서 팬텀(F-4D)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태평양을 횡단 비행한 강신구(당시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중령, 후에 장군 진급함) 편대장은 영화배우 강신성일(개명 전 강신영) 씨의 친형(親兄)이다.

필자는 공군작전사령부(전투작전처)에서 강신구 탑건(Top Gun)을 모시고 군 복무를 했다.//

첫눈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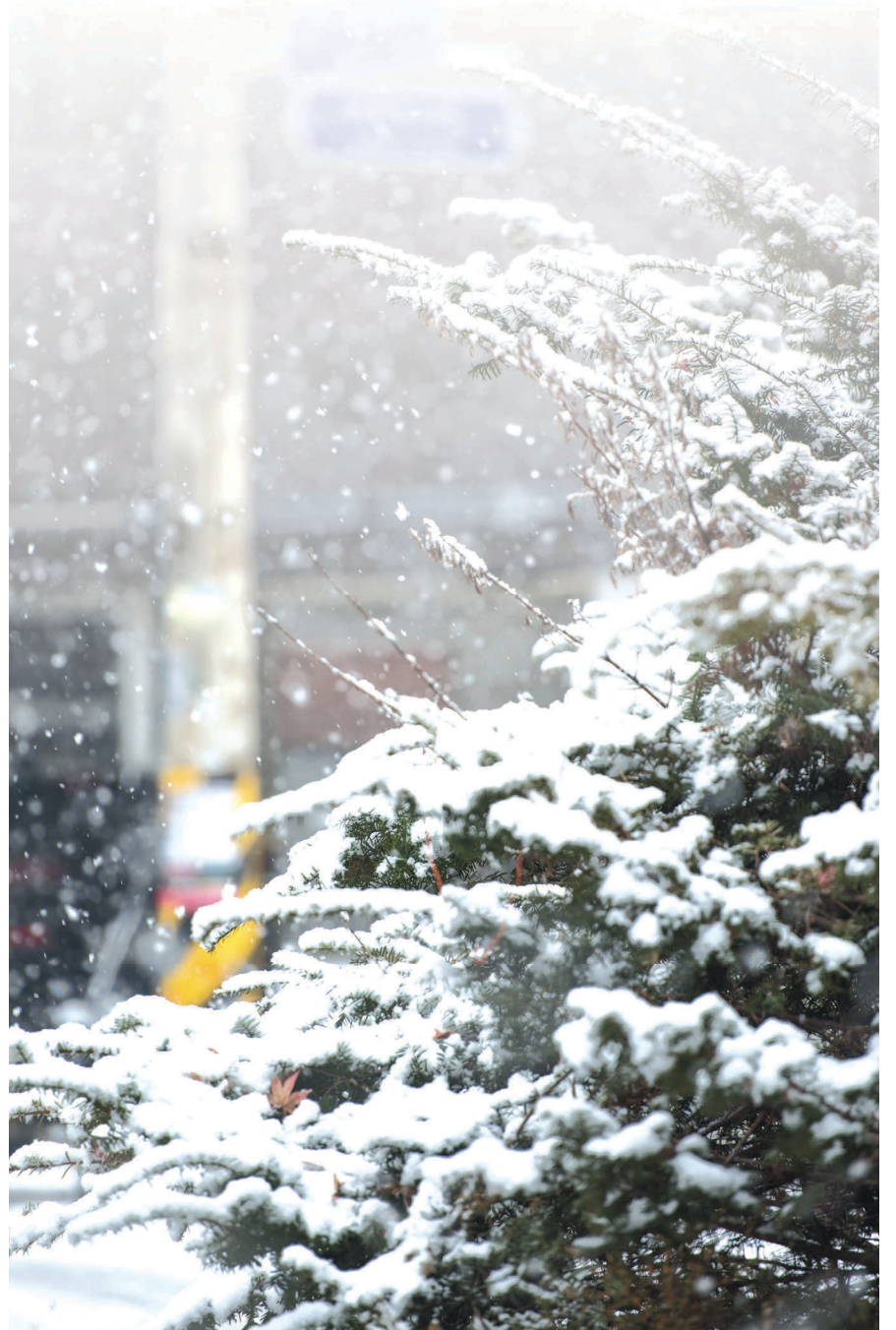
첫눈이 온다. 매서운 바람에 실려, 하늘은 순백의 숨결로 땅을 덮는다. 새벽 창가에 선 나는 그 경이로움에 눈을 감고, 맑은 첫사랑처럼 가슴이 떨린다.

또 다른 첫눈, 그날은 바람도 불지 않았다. 내 앞에 선 너의 미소가 마치 세상에 처음 내린 눈처럼 마음을 덮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순간, 너라는 눈송이가 내 심장에 내려앉았다.

첫눈이란, 하늘이 주는 선물인 동시에 가슴을 흔드는 고백이다. 하나는 차갑고 포근하며,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둘 다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한다. 첫눈이 올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너를 떠올린다. 그 차가운 아름다움이 어떻게 내 마음을 덮어주는지, 그 뜨거운 떨림이 어떻게 내 세상을 바꿨는지.

첫눈은 늘 새롭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도. 우리 모두는 첫눈을 기다린다.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10월 30일 지부장 등 6명이 제1전투비행단 초청을 받아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운동을 함께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광주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및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시내 연회장에서 지부 임원 20여명이 송년회를 가졌다.//



대구지부

대구지부(회장 남상석)는 12월 10일 시내 아현정한옥웨딩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송년사, 주요업무 추진경과, 공군홍보 영상 시청 등 1부 행사에 이어 오찬후 행운권추첨(15명)과 장학단에서 빨간마후라 함장 및 공군가 제창으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미 LA지회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1월 9일 잉글우드 메모리얼파크에서 독립운동가 김종립 52주년 추모행사 및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김종립(1886.1.19 - 1973.1.26)은 미주독립운동 활동 중 한국공군의 기원이 되는 캘리포니아 소재 '윌로우스 비행학교'(1920.7.5)를 설립하는데 전폭적 재정후원을 했다. 중앙회 이계훈 회장은 LA지회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이민 선조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비행학교도 없었을 것이라며 늦게나마 현화와 애국지사의 삶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공군 전우들은 선조들의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모행사 후 한인타운에서 전우들의 근황과 공군소식을 주제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회

진주시회는 12월 19일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지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하였다. 이날 취임한 조현철 지회장은 "진주시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지회

창원지회는 12월 10일 시내 음식점에서 제47대 이성배회장과 제48대 김춘식회장의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부녀회 및 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춘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지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모든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시회

청주시회(지회장 이균신)는 11월 15일 시내 상당구 중앙동에서 독거노인 및 청소년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봉사활동 하였으며, 12월 14일에는 2024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지회원 150명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1부 2024년도 업무결산과 2025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2부는 만찬을 함께하며 송년행사를 가졌다.//



충주시회

충주시회(지회장 조동주)는 12월 20일 지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결산안 및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다. 조 지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지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이용안내 및 진료비 감면 안내

1. 대상자 및 진료비 감면을

: 무공·보국수훈자, 장군,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역주민 등

감면대상자	감면율(%)	
	본인	유·가족
애국지사, 특수임무 수행자, 전상,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광주민주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 특수임무부상자	100	60
경상이자	상이처 100	-
고엽제후유의장(경도~고도),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보훈원입소자, 연구환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100	-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등외	확진병명 100	-
보훈보상대상자 1~6급	100	60
보훈보상대상자 7급	상이처 100	60
특별공로상이자, 광주(5·18)사망자, 4·19혁명 공로자	60	60
기타 광주(5·18)희생자	50	30
참전유공자	90	-
무공, 보국수훈자	60	60
장군,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50	-
군복무중 발병자(해당질병)	50	-
현역군장병, 해양·경찰공무원, 퇴직 해양·경찰공무원	30	-
전몰군경, 순국선열 유·가족	-	60

※ 감면제외항목 : 치료재료대(비급여, DRG제외), 보철구대, 제증명, 상급병실이용료, 치과보철재료대, 외과개선편익진료

2. 진료예약 방법

- ☞ 병원 내원 예약
 - ① 원내 원무접수 창구 방문
 - ② 진료예약증 수령 후 진료 예약일에 내원
 - *예약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 전화 예약
 - ① 전화예약실(02-2225-1234)로 전화하여 진료예약
 - ② 진료예약일에 내원
 - *예약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 인터넷 예약 (<https://seoul.bohun.or.kr/>)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및 회원가입 -> 진료과 선택 -> 의료진 선택 -> 진료일자 선택 -> 회원예약 -> 등록번호 선택 후 최종 예약

■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안내 (근거: 2024국방부발행 전역간부안내서)

가. 안장 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1) 전·퇴역자

가)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자

* 10년 이상 복무자·참전자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안장 가능

나)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

다)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2) 상이자 : 상이로 전역·퇴역·면역·퇴직한 후 사망한 자

*배우자 합장 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나. 안장 신청 절차

1)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및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 접속 후 신청

* 국가보훈부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서울현충원은 충훈당 납골시설 봉안만, 대전현충원은 묘역 안장만 가능

2) 배우자 합장의 경우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이후 가능

다. 안장 비용

국립묘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장 및 합장에 소요되는 물자 부담 및 규정에 의한 명패 및 묘비시설은 국고 부담

* 다만, 장례·화장·유골의 국립묘지까지의 운구 비용, 안장된 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은 유족 부담

라.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 1)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현역군인
- 2)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 1~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한 자
- 5) 국적 상실자(단, 2014.1.17.이후 사망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안장될 수도 있음)

* 참고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신청서류

구 분	무공수훈자 및 상이군경	장군, 20년 이상 군복무자	
		군인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미수급자
안 장 자	안장 신청 시	좌 동 (일시금 수령자: 확인증 첨부)	좌 동
	유골 봉안 시 (안장당일)	좌 동	좌 동
이 장 자	이장 신청 시	좌 동 *단, 1981.1.1.이후 사망자만 이장 가능	
	유골 봉안 시 (이장당일)	좌 동	
배우자 합장자	·배우자합장신청서 1부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이장·합장시 추가서류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 의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팀 02-826-6238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40 ·국립괴산호국원 043-830-1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042-820-7051 ·국립임실호국원 063-640-6081 ·국립산청호국원 055-970-0770 ·재향군인회본부 참전복지부 02-417-525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2-506-1272, 042-552-1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군 예비역단체 ·공군전우회 02-825-8461 ·공사총동창회 02-823-1091 ·공군학사장교회 02-834-0901